



# 백지

백지

**재배적지**  
(가) 기상  
백지는 내한성이 강하고 생장력이 강해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재배가 가능하지만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므로 중부이북지방에서의 재배가 유리하다.

(나) 토양  
토양은 사양토~식양토로서 토산이 깊고 유기물함량이 많으며 물빠짐이 잘되는 것이 좋다. 모래땅에서는 재배가 많이 발달하고 진흙에서는 뿌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염착하면 발육이 좋지 않고 수량이 크게 감소한다. 그러므로 한번 심었던 밭에는 2~3년간 다른 작물을 심어야 한다.

**품종 및 채종**  
육성된 품종은 품종이 없고 각 지역 산야에 자생되고 있는 것을 순화시킨 지방재래종이 재배되고 있다.

**씨앗의 2~3년생**  
의 병해나 추해 또는 다른 재해를 받지 않은 건전한 포기에서 상수면층자를 채종하여 사용한다. 채종된 종자는 잘 건조시켜 종이봉지나 마대아담아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한다.

**재배법**  
육묘이식재배와 직파재배가 있다. 육묘이식재배는 육묘이식의 노력이 많이 든다. 직파재배는 일손이 절약될 수 있으나 수확량의 감소가 따른다. 과거에는 주로 육묘이식재배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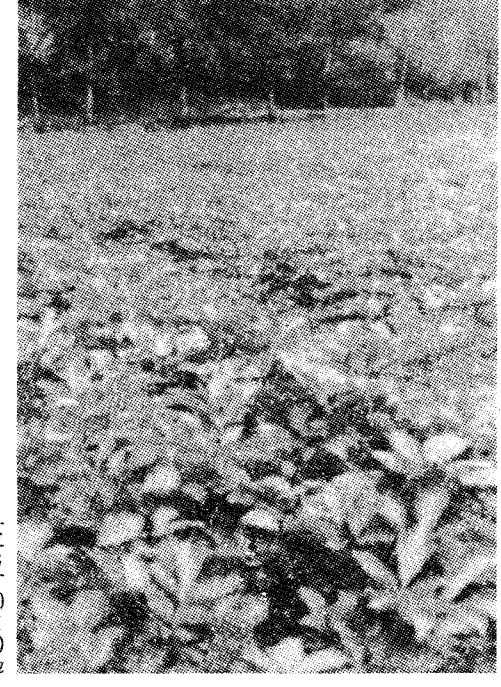
◇백지 생약재

## 파종기 늦으면 발아생육 부진 봄파종은 3월 20일경이 적기

**직파재배**  
(가) 파종기  
재배지역에 따라 파종기를 달리하고 있다. 중부지방에서는 가을파종이 많고 중부지방에서는 봄파종이 많다. 가을파종은 10월 하순~11월상순, 봄파종은 3월 20일경이 적기이다.

파종기가 늦어지면 발아생육이 늦어져 수량이 감소된다. 따라서 가능하면 일찍 파종하는 것이 좋다.

(나) 재식거리  
봄파종하여 1년 가을에 수확하는 경우의 재식거리는 40cm, 포기사이 10cm로 3~4립씩 파종했다가 분얼이 2~3매 전개될 때 솟을파종하여 건전한 것으로 1추를 남겨 놓는다. 밀식하면 수량이 증가한다.



◇백지식물

은 종자하나 품질이 떨어지고 규격품 생산이 어렵으므로 전정재식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 시비  
직파재배는 당면의 수확을 하므로 비료적비유한 땅의 거름을 많이 주어 뿌리의 비대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뿌리의 비대 정도는 10a당 질소 7kg, 인산 6kg, 칼륨 6kg과 퇴비 1천2백kg 이상을 경운전에 시비하는 것이 좋았다. 1백20cm 두둑을 심지 않는다.

시비량은 토양의 비옥도 및 기상상태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 경상남도 고성군 흥천에서 시험한 결과 10a당 질소 7kg, 인산 6kg, 칼륨 6kg과 퇴비 1천2백kg 이상을 경운전에 시비하는 것이 좋았다. 1백20cm 두둑을 심지 않는다.

3회 정도 실시해 준다. 김매기를 할 때 부추기도 곁에서 실시한다.

**병해충 방제**  
(가) 병해  
유채, 당근과 같이 습기가 많으면 근핵병이 발생한다. 경운이 잘 되는 포기는 뿌리에서 태우고 그 자리에 스팀스, 석회도르드르 등을 뿌려주어 더 이상 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배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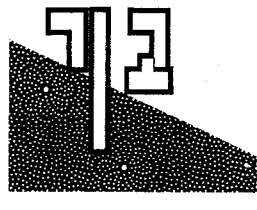
7~8월 장마가 지상부 생육이 왕성해지면 흰가루병의 발생이 심해 배노닐이나 퀘나리트를 예방약으로 뿌려주면 효과가 있으나 품종고수가 되어 있지 않다.

(나) 충해  
신신휘, 아도충, 진딧물, 잎벌레, 진딧물 등이 발생한다. 진딧물과 아도충은 투약할 때 인후라딘이나 마린스를 파종전에 전포엽에 살포하여 주고 진딧물은 페시스, 피리피노, 피레스, 메타시스투스, 란데이트 등을 교호로 뿌려주면 방제가 되는데 품종고수가 되어 있지 않다.

수확 및 조제  
수확은 11월경 하순 땅이 얼기 전에 해야 한다. 수확방법은 지상부를 낫으로 베어내 고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잘 캐내고 캐낸 뿌리가 흠을 털고 물에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린다. 어느 정도 말라 부드러워지면 손질하여 뿌리를 골세하고 자뿌리를 한데 모아 영태를 잘라 후크기별로 선별하여 적당히 크기로 묶어서 다 시 완전히 건조시킨다. (농진청발간 「유채 재배」 중 발췌)

# 생약농업 정밀적 재배의 관행

전국적으로 생약 인산의 생산이 급증하고 있다. 생약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약 재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생약 재배는 단순한 농작물 재배와는 달리, 생약의 특성에 맞는 재배 기술을 필요로 한다. 특히, 생약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배 환경, 토양, 그리고 수확 방법 등에 대한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30여 품종을 포함하여 80여종의 생약이 재배되고 있다. 생약 재배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므로, 우리나라의 기후와 토양 조건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생약의 생장 주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파종하고 수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약재를 이용한 자연추출물 등**  
천연소재 개발, 업계에 보급 시급  
최근 생약재는 인공적으로 합성된 약제와 비교하여 높은 효능과 낮은 부작용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활용한 자연추출물 등 다양한 생약 제품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생약재의 품질 관리와 유통 체계가 미흡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계에 보급 시급하다.

이러한 생약재는 인공적으로 합성된 약제와 비교하여 높은 효능과 낮은 부작용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활용한 자연추출물 등 다양한 생약 제품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생약재의 품질 관리와 유통 체계가 미흡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계에 보급 시급하다.

생약재는 인공적으로 합성된 약제와 비교하여 높은 효능과 낮은 부작용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활용한 자연추출물 등 다양한 생약 제품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생약재의 품질 관리와 유통 체계가 미흡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계에 보급 시급하다.